

## 데리다의 해체적 사유와 바서만의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나타난 법과 정의의 문제

김희근 (한양대)

### 국문요약

데리다에 의하면 법은 종교 또는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폭력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폭력의 권위에 굴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유롭지 않으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편성과 질서의 이름으로 개인과 소수의 존립을 억압한다. 그래서 법으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은 데리다의 시각을 통해 바서만의 소설 『마우리치우스 사건』을 살피려 한다. 등장인물 마우리치우스의 불행한 삶과 죽음은 사법체계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증거하며, 안더가스트의 인식과 자책은 사법체계의 변화 가능성, 즉 타자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법의 미래를 시사한다. 비록 안더가스트의 실천은 제한적이지만, 바서만은 반성적 성찰이 정의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본다. 정의는 법에 진리의 빛을 비춘다. 바서만은 열림의 체계인 정의가 법의 닫힌 체계를 부단히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법에 숨어 있는 갈등의 요인들을 밝히고 정의와의 대립적 상황을 드러내며 그것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어:** 바서만, 데리다, 레비나스, 법과 정의, 법의 폭력성

### I. 들어가는 말

야콥 바서만 Jakob Wassermann(1873-1934)의 『마우리치우스 사건 Der Fall Maurizius』(1928)<sup>1)</sup>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가장 많이 읽힌 작품 중 하나에 속

1) 『에첼 안더가스트 Etzel Andergast』(1931), 『요제프 케르크호펜의 세 번째 현존 Joseph Kerkhovens dritte Existenz』(1934)과 더불어 안더가스트-삼부작 Andergast-Trilogie으로 불린다. 『마우리치우스 사건』은 이후 “MA”로 축약하고 쪽수만 표기한다.

한다. 배우자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레온하르트 마우리치우스에 대한 이야기인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범행 전의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만든다. 공판기록, 신문기사, 다양한 증언들, 마우리치우스 부자와 면책증인 바렘메 등에 대한 조각난 이야기들이 모자이크처럼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범죄에 대한 탐문과정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범죄소설이나 추리소설, 또는 법정다툼과 관련자들 간의 긴장을 다룬 법정추리소설로서 이 소설이 인기를 얻었고,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 것도 당연하게 보인다(Koeter 1996; Zahnnow 1984). 작가가 세대갈등의 문제를 통해 몰락해가는 빌헬름 시대를 형상화했다고 보는 연구 시각도 있다. 계급적 질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저항하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라든가, 빌헬름 시대의 가치관 및 규범체계의 몰락을 잘 드러냈다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Schneider-Handschin 1989). 하지만 소설은 매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서술이 불가능해지면서 당대 문학의 특징인 시대소설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Martini 1990). 아울러 등장인물들은 당시의 특정 이념 또는 인간을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등장인물 바렘메는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로 번민했던 현대유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Horch 1985, 133). 또한 이 작품은 법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다루어졌다(Jütten 2007, 251f.). ‘법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법치국가의 근본적 원리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Neubauer 1994, 69ff.).

『마우리치우스 사건』은 흥미 본위의 범죄소설이나 추리소설에서 볼 수 있는 통속성의 범주를 넘어선다. 법과 정의의 긴장 및 모순적 관계에 대한 의미들을 소설 속에 쌓아올리면서 작가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개념과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세대갈등의 문제를 특정 시대의 고유한 문제로만 보는 것도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빌헬름 시대의 갈등적 사회구조와 몰락상을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 소설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의 건설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소설 전반부의 에첼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억압된 욕망의 분출, 존경과 고독 사이에서 삶의 방위를 정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러지지만,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개입하면서 그의 좌절은 저항의 단계로 바뀐다. 에첼의 스승인 라프 박사가 규정하듯이, 그는 절망과 분노에 갇혀 있는 인물이 아니며, 투명한 내면성과 성숙한 도덕성 그리고 날카로운 이성적 판단의 소유자로서 인간과 세계의 숨겨진 비밀과 근원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천재로 묘사된다. 바서만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 즉 아가톤과 카스파 하우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에첼에게는 혼돈의 세계로부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니체적 의미의 초인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Greissinger 1986, 26f.)<sup>2)</sup> 흥미 본위의 통속성 뒤에 숨어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원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사유를 감지하고, 시대의 특징으로만 자리매김 되었던 세대갈등의 문제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에서 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데리다와 바서만의 사유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철학과 문학은 각각 다른 관점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철학적 개념과 문학적 상상력은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사물과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에 공히 철학과 문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 때, 법의 폐부를 드러내고 동시에 치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양자는 오히려 상보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철학과 문학의 상이한 관점들은 포괄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면서 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바서만은 사법적 정의에 대한 오해와 집착이 인간성을 훼손하고 진정한 정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법의 이해관계와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법과 정의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그마가 된 사법적 정의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법은 법을 정초한 세력이나 제도의 이기심과 체제 보존의 야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통찰은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가 행한 법 비판의 핵심과 맥이 닿아 있다. 법은 정의롭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은 권위를 바탕으로 폭력을 자행한다고 그는 『법의 힘. 권위의 신비한 토대 Gesetzeskraft. Der mystische Grund der Autorität』(1991)<sup>3)</sup>에서 말한다. 보

2) 『치른도르프의 유대인 Die Juden von Zirndorf』(1897)과 『카스파 하우스 또는 양심의 나태함 Caspar Hauser oder Die Trägheit des Herzens』(1908)에 나타난 구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김희근 2017; 2018)을 참조할 것.

편성을 대변하는 법과 개별성에 주목하는 정의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것을 메울 가능성을 아포리아 Aporia에서 찾는 데리다에 앞서, 법이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바서만이 문학 작품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며 정의의 본질을 생각할 때가 있다. 특히 사법 제도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현실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문득 놀란다. 그래도 정의는 이러한 혼란을 견디고 현실을 대면하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데리다와 바서만이 표방하는 정의, 즉 사법적 정의가 아닌 철학과 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윤리성을 담보한 정의가 그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법으로 수렴되지 않는 도 착적 현실을 담아낼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I. 정의로운 법을 위한 해체적 사유

법의 폭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에 의한 것으로서, 데리다의 『법의 힘』은 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 Zur Kritik der Gewalt』(1921)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즉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 또는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벤야민은 법을 정의와 대척적 위치에 있으며 정의 실현의 도구가 아닌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요소라 말하면서 법의 근본적 특성을 폭력성으로, 말하자면 수단과 목적을 위해 실행되면서 법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주목할 것은, 법의 미명 하에 행사되는 폭력은 적법하고 정의로운 것이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은 불법이며 부정의하다고 법이 주장하는 점이다. 법 이외의 폭력을 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은 폭력을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 이외의 폭력에 의한 법의 존재 기반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고, 그래서 법을 보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가 적법한 것

3) 『법의 힘』은 이후 “GE”로 축약하고 쪽수만 표기한다.

또는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는 법의 주장에는 처음부터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법은 법을 정초한 세력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법 정립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법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법 보존적 폭력을 사용하며 그것에 정당성 또는 정의의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김지영 2013, 41f).

법은 늘 폭력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되도록 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인정된 그리고 정당한 폭력이라 하겠고, 비록 그 폭력이 정당성 주장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정당성을 획득한다(GE 12).

테리다는 벤야민의 통찰을 바탕으로 법 개념에 존재하는 모순과 폭력성을 지적한다. 법의 정당성은 법을 정초한 세력의 정당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법은 특정 권력과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고, 스스로도 폭력의 권위에 굴복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서와 보편성의 이름으로 개인과 소수의 존립을 억압하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법으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의 힘과 법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또한 힘이 없으면 정의 역시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도 힘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파스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정의는 힘이 없으면 허약한 것이 된다”(GE, 23). 하지만 테리다는 정의가 없는 권력은 독재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기반의 법은 결코 권위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테리다는 “권위의 신비로운 토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정의롭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으로서, ‘법으로서의 정의는 결코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의 존립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GE, 25). 법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객관적인 토대가 없다는 사실은, 법은 권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롭기 위해서

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으로 돌려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법은 순수하고 독립적인 힘 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폭력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법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데리다는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법의 맹점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법의 재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거나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그저 아포리아라고 말할 뿐이다.

데리다에게 있어 정의는 풀어나기 어려운 문제, 즉 아포리아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법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쉽다. 정의는 기존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미래의 시점에 드러날 것으로 막연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데리다의 법 비판이 허무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아포리아에 해체 개념을 덧붙인다. 객관적 기반이 없는 법은 역설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해체의 과정을 통해 법이 정의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의 모색은 법과 정의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계산 가능한 법은 계산 불가능한 정의가 아니지만 정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계산 가능하다는 말은 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이고 공평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계산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의가 보편성을 넘어 개별성을 고려하고 보편성 속에서 개별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법 조항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공의 이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대치되는 개별성, 즉 보편성의 범주 외부에 있는, 또는 보편성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특별함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법 조항의 객관적 적용은 기계적 판단과 적용에 불과하므로 보편성과 더불어 개별성에 관심을 쏟으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데리다의 입장은 엄격한 법의 판단과 적용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시각이 편협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법적 판단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 상응하면서

4)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면서 우리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GE 36).

도 법이 설정해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별적 사안들이 갖는 의미와 차이들을 면밀하게 살펴 매번 고유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 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비추어 법을 매번 다시 검토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이 해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의 아포리아 제시를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자의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통찰 방법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합치될 수 없지만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불가능한 것의 관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 III. 폭력으로 은폐된 법의 토대

바서만은 작품의 소재를 1906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피의자 칼 하우에 대한 재판에서 가져왔다. 변호사 출신 칼은 장모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후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가 18년이 지난 후 석방되었지만 자살하고 말았다. 칼은 소설의 등장인물 레온하르트 마우리치우스의 모델이다. 칼이 결백을 주장했던 것처럼, 배우자 살해 죄목으로 기소된 그 역시 법의 오류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로 그려진다(Rodewald 1998, 109ff).

마우리치우스 사건을 맡은 검사 볼프 안더가스트는 규율과 질서를 신봉하며 원칙과 합리성에 매달리는 이성주의자다. 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배우자 및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는 전제군주처럼 가정을 지배하며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독선과 규율을 강요한다. 부인 소피아는 건조한 결혼생활로부터 도피하고자 혼외정사를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그녀는 강제적으로 외국으로 추방되고 아들과의 연락 또한 단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다.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에 대한 아들 에첼의 억눌린 저항심이 밖으로 표출된 것은 한 살인사건 때문이다. 배우자 살해 건으로 기소된 레온하르트 마우리치우스는 유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더가스트에 의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는데, 19년이 지난 후 사면을 위해 그의 아버지가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노인

을 몰래 찾은 에첼은 살인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그리고 주위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건네받은 사건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은 후 마우리치우스의 결백을 확신한다. 그는 그레고어 바렘메를 만나러 베를린으로 향한다. 게오르크 바르샤우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는 그는 재판 당시 면책증인이었고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다. 그는 에첼을 정면하며 진술을 조작하고 위증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하지만 에첼은 집요한 추궁과 지혜로써 위증고백을 받아낸다. 한편, 아들의 갑작스런 가출에 안더가스트는 충격을 받지만, 에첼이 남겨놓은 편지에 자극을 받아 당시의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사건일지와 진술 및 증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거장다운 작업 습속에 놀라던 그는 곧 실수를 발견한다. 피고의 인정진술이 없었고 증인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와 같이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인물로 묘사되며, 이들에 대한 서술 역시 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명예회복을 희망하는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는 사면을 의도한다. 결국 마우리치우스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오랜 감금생활로 내면이 황폐화된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도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는 높은 계급 위에 설치된 다리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다. 베를린에서 집으로 되돌아온 에첼은 바렘메의 위증사실을 밝히며 아버지와 정면충돌한다. 안더가스트는 충격 속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릇된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늘 편파적 수사를 했고, 아들도 잃었다는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그는 퇴직을 요청한다. 하지만 좌절은 이것에 머물지 않는다. 뇌졸중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게 된 그는 이제 소피아에 의해 고소당한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자로서, 위증을 교사한 자로서, 정부를 죽음에 몰아넣은 자로서, 아들의 가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그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양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Jütten 2007, 251). 안더가스트는 사법적 정의의 주체다. 그에게 마우리치우스는 반사회적 인물, 즉 질서와 규율에 반하는 범죄인일 뿐이며, 법적 판결은 불가역적인 것이고, 처벌은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바렘메에게 정의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 또한 심리적인 미로일 뿐이다. 개인은 우연히 만

들어진 사회적 구조 안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을 통해 인식하며, 그것을 생존 법칙으로 삼는다. 에첼은 아버지와 바렘메로 대표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거부한다. 체계와 규칙에 얽매인 아버지의 사고에는 감성과 주관성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와 반대로 바렘메는 본능에 휘둘리는 인물이며 생존을 위한 그의 삶과 행동은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이기주의로 비판된다. 마우리치우스는 인간의 모순성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인물이다. 고귀함과 범죄, 두 가지가 한 인간에게서 가능하다는 것에 그는 번민한다. 영혼이 제거된 기계와 다름없는 법 안에서, 법의 전횡과 자의성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 그릇된 법적 정의와 규율사회를 대변하는 검사 안더가스트의 사례를 통해 법의 부정적 속성, 즉 폭력성과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권위, 그리고 이에 대한 바서만의 비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과 질서는 안더가스트에게 종교와 인간애를 대신하는 대체물이다. 의무 수행은 삶을 지배하는 절대원칙으로서 직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절대적 가치로 간주된다. 이러한 내적 절제와 원칙주의는 일체의 감성과 형이상학적 사고를 부정한다. 그는 산책을 하거나 음악회 관람을 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 없이 철저하게 고독한 삶을 영위한다. 그는 “현재라는 새장”(MA 139)에 갇혀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메마른 성격의 그에겐 사랑 역시 도구에 불과하다. 배우자는 그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를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 삶은 구실이자 허상일 뿐, 삶과 사람들로부터 유리된 그는 “조각과 다름없이 굳어있는 인물”(MA 150)이다.

이러한 특성은 에첼의 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더가스트는 아들에게 “문과 창문 없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비밀로 뒤덮여 우뚝 솟아있는 들어갈 수 없는 탑”(MA 31)과 같은 존재로서 주위세계를 감시하고 의식을 조작하는 최고 의지로 여겨진다. 준칙과 질서를 도구삼아 사람들의 입을 막고 눈을 묶는 억압적 통제체제를 상징하는 안더가스트에겐 감성적 내면의 소유자인 에첼도 교정 대상이다. “우리는 왕, 장군, 장교, 판사, 검사, 군인, 노동자, 전령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육성되어져야만 한다”(MA 181). 그에게 교육이란 비합리적 사고와 내면을 길들이고 보편성과 질서에 위배되는 모든 독자적

행동을 억제하여 기존의 가치관을 답습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다.

마우리치우스에 대한 안더가스트의 법적 판단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범죄 유무의 시각이 아닌 사회에 대한 위험성 유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가 수호하는 법은 ‘사회적 통제 불가의 악습으로 흐르기 쉽고, 사회와 가정 그리고 정당한 질서의 결속 상태로부터 개인을 벗어나도록 만들며, 노동과 가정, 시민적 이상, 게다가 고귀한 정신과 학문을 향락에 빠져 방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MA 275). 말하자면 반사회적 특성, 즉 빌헬름시대의 몰락상황을 증거하는 데카당스 특성이 나타나는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징후들, 즉 나태함과 도덕적 타락이 안더가스트에 의해 질서를 악용하고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로 규정되면서, 마우리치우스는 ‘시대의 불행, 국가의 질병상황을 체현하는 인물이 된다’(MA 274). 그는 반사회적 인물로 부르기 보다는 나약한 성품의 사회적 약자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데, 안더가스트로 대표되는 사법체제는 이러한 특성들을 사회악이라 단정해버린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안더가스트는 신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반사회적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신이 버린 그를 왜 우리가 보호해야만 한다는 겁니까?”(MA 276). 사법체계의 무오류에 대한 믿음과 정의의 수호자에 대한 확신, 그것은 도구적 이성, 맹신과 모든 것을 판단 가능한 것으로 보는 오만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법은 곧 억압적 폭력성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토대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법의 이러한 토대는 마우리치우스와 연적 관계에 있는, 그래서 법정에서 면책 증인이 되어 거짓증언을 한 바렘메의 사례를 통해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더가스트는 법을 고도의 메커니즘으로 여기며 법 전문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한 바렘메는 거짓연기를 펼친다. 안더가스트가 원하는 법정 진술과 태도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진술하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의식을 갖춘 증인’(MA 180ff.)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증인들, 그들 모두는 그에게 예속되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다. 그의 진술이 판결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MA 192). 그의 연기는 안더가스트가 지향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바렘메가 조롱하듯 법은 “서류더미가 쌓인 냉혹하고 탈색된 산”(MA 143)처럼 경직되고 편협한 원칙주의에 매몰된 체계에 불과하다. 또한 허상에 불과한 법을 보존하며 이에 도전하는 주체에 폭력을 가하는 안더가스트의 행위는 모순적인 내면, 즉 질서에 대한 복종과 의무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억제된 내면의 고통에 대한 복수라고 말할 수 있다. 내재된 분노와 불만을 타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해소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안더가스트의 고통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자에 대한 처벌로 해소되며, 마우리치우스에 대한 처벌 역시 억압된 내면과 의무수행에 대한 강박관념의 표현으로서 상처받은 그의 감정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다. 스스로 두려워하고 경멸했으며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버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마우리치우스가 사법체계를 복수욕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며 판사와 검사의 전지적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MA 268ff).

#### IV. 타자를 위한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는, 즉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가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타자 덕분이다. 그리고 타자 덕분이라는 것은, 모든 계약체결 관계에 앞서, 타자로부터 오는, 늘 특별한 타자의 도착 때문이다(GE 51).

우리가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통찰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관계로서 자칫 법과 정의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가 쉽다. 법만 또는 정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개별성 또는 다원성을 두루 살피는, 즉 보편성이 지나치게 힘을 행사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개별성의 입장에서 보편성을 감시하고, 그러면서도 보편성과 개별성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정의가 서로 견제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었다. 데리다는 한 발 더 나아가 법과 정의의 가장 적절한 결

합을 위해 환대 개념을 도입한다.

데리다는 에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의 타자론 *Theorie des Anderen*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타자론의 핵심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 고통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타자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관계로 만드는, 소위 비대칭적 관계에서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환대, 즉 정의라 함은 ‘대칭과 낯설고, 이질적이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 절대적 비대칭성에 근거한다’(GE 44f).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수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법의 조건적 환대와 대비되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 환대를 데리다는 진정한 환대, 즉 정의로운 환대로 간주한다. 개별성 또는 개인은 법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보편성과 평등을 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성을 정당한 강제력으로 이해했던 법은, 자신의 실체와 한계성을 인식하며 비로소 세상과의 비대칭적 관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타인으로 법을 확장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을 법의 확장을 의미한다.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평등이나 계산된 형평성, 공평한 분배 또는 분배에 기반을 둔 정의가 아니고 절대적 비대칭성을 말한다”(GE 45). 하지만 데리다는 개별성 또는 독특성에서 생길 수 있는 배타성을 지적하며 레비나스의 무조건적 타자수용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둔다. 무조건적 환대가 정의로우려면 조건적 환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성, 즉 타자는 복수의 의미다. 한 사람의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해도 다른 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했지만, 그 안에서도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정의가 법보다 더 모순적이며 근본적으로 더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보편성과 개별성의 결합은 다원적인 것이라 하겠고,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늘 새로운 방안의 창출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같이 법과 정의는 최적의 결합을 위해서는 늘 아포리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좌절이나 허무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의 요청에 상응하여 법과 정의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며, 법 또는 정치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자 믿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찾으려는 진정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정의란 아직 일

어나지 않은 사건의 차원이다. 언제나 미래의 정의다. 정의라는 말에는 미래적 시간 차원에 대한 유보가 담겨있고, 이 미래에 대한 개방성이 자리한다. 이 개방성으로 인해 정의는 법과 정치의 어떤 변화와 변형 혹은 새로운 논거를 창출할 수 있다”(문광훈 2011, 117).

데리다의 레비나스 수용은 전적으로 법과 정의는 같다고 전제하는 통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법 안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정의가 작동한다는 법과 정의의 대칭적 구조를 비판하고 해체하여 법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통해 정의가 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정의는 법 너머에서 법이 정의롭게, 그래서 새롭게 재구축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의와 법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분리가 불가능하며, 정의는 법 안에서 법을 감시하며 견제하여 정의로운 법의 정초를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 V. 정의의 역할

정의는 출생과 같고 부정의는 죽음과 같다. [...] 사람은 원초적 형태의 정의 개념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정의에 관여한다. 공기를 마시듯 말이다. 그로부터 정의를 알아간다면 영혼은 질식하고 말 것이다(MA 539).

에첼에게 있어 정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어디에서나 늘 유효한 보편적인 가치이다. 말하자면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원초의 상태에서부터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근본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세계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심장과 같다”(MA 369). 또한 현실 속에서 ‘진실 또는 정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것’(Neuhaus 1993, 23)이 삶의 목표라고 그는 말한다. 정의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의 차원을 넘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법에 대해서도 에첼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 법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선형적으로 인식되는 자연법칙인 정의와 동일하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법이 아닌 불변의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소위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안더가스트와 에첼의 충돌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설정법과 자연법의 충돌, 즉 설정법을 근거삼아 폭력을 정당화하는 안더가스트에게 자연법을 근거로 에첼이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법과 설정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차지하고라도, 소설에 나타난 정의와 법의 일치에 대한 에첼의 신념은, 법은 정의의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로 정의와는 일치된 적이 없다는 통상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상론으로 보인다. 작가는 에첼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정의 추구가 불안정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첼로 상징되는 정의의 역할이다. 앞에서 다루었다시피, 데리다에게 있어 법이 정의롭게 실현되는 과정은 확정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거듭된 간섭과 견제를 통해 대안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즉 실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미래의 모습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대를 의미한다. 에첼의 정의는 안더가스트에 의해 수호되는 법의 본질과 부정적 속성들을 드러내 보이며 법질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인식을 일깨우는 계몽, 그리고 법이 윤리성에 바탕을 둔 정의와 일치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바렘메의 위증사실 고백을 바탕으로 19년 전에 내려진 판결의 부당성, 즉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배타적 숭상을 통해 자기기만에 빠져있는 안더가스트의 허구적 삶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다시 찾은 에첼은, 사법적 폭력에 의해 한 인간의 삶이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사법체계가 억압의 기관으로서의 본성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과 정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안더가스트는 에첼의 요청에 냉소를 보낸다.

정의와 법이 같은 것이라고,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인간과 현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관행에 대한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관계다. 너는 상징으로만 살 수 없다. [...] 그것은 가르침이자 훈계에 불과했다. [...] 나는 인정하지 않

는다.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배타적인 카스트 제도의 교활함을. 음모를. 돈의 위력에 대해 사제들이 갖는 두려움을. 종교적 관행이라고? 어째서? 그게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무고한 자를 몰락하게 만들어놓고선, 그게 관행이고 상징은 그저 히죽히죽 웃고 있는 경비병의 얼굴 위에 걸쳐진 투구처럼 그저 그 위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천박한 것이라면 차라리 갈가리 찢긴 세계가 더 좋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MA 540f).

법과 정의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에첼의 요청은 원래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평범하고 정직한 인식의 발로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법은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현실이다.

이 세상이 존재한 이래로 과연 전쟁을 위한 정의로운 구실이 있었는가? 정의에 대한 사랑에서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있었는가? 악명 높은 도적들과 살인자들에 의해 실패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문책을 당한 자가 있었는가? 그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 혈연관계에 대해서, 법과 복수의 개념들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하네. 역사상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제국이 건립되었는지, 종교가 세워졌으며, 도시들이 건설되었는지, 또한 문명은 정의의 도움으로 전파되었는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나? 나는 없네. 천만 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을 멸종시킨 범죄를 위해 속죄의 장이 있더라도 한 것인가? 일억 명의 중국인들을 아편에 중독 시켰던 일은 어떠한가? 삼천만 명의 인도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는?(MA 489f.)

에첼이 주장하는 법과 정의의 일치는 바렘메에 의해서도 부정된다. 그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시대를 통찰하는 지성인이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안더가스트와 동일하게 정의에 대한 에첼의 망상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인식은 안더가스트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부정의의 실체를 보지 않고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법과 정치체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더가스트의 정의관은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사

법적 정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나간다. 그것은 법 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자기 상실을 거쳐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법은 인식의 가능성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즉 법적 정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반이성적 사고가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직관은 숨겨져 있는 순수한 가치들과 진리 및 정의를 발굴하는 인식의 요소라고 그는 말한다. “익히 알고 있는 현실 넘어 또 다른, 비밀로 가득한, 동시에 더 진실한 그런 현실이 도처에 펼쳐져 있는 것 같다”(MA 151). 안더가스트가 정의를 반 합리주의적 사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적 전범으로 받아들인 법의 정의가 타락하고 왜곡된 현실을 감싸는 외피로서 휴머니즘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었다는 인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반성은 그가 마우리치우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촉발된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그들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내적 접근이라 부를 수 있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안더가스트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폐한 그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마우리치우스가 “법행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 벌거벗긴 채 법정경비 앞에서, 경찰 조사관 앞에서, 교도관 앞에서, 서기 앞에서”(MA 218) 겪은 경험들을 설명하자, 그의 자책과 반성은 점진적으로 법의 폭력성에 대한 통찰과 법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법의 폭력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 상실과 소외, 불안 등의 내적 부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좌절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나 정의를 향한 안더가스트의 자기성찰과 해법 탐색은 제한적이다. 법적 판단의 오류와 사법체계의 맹점을 드러냄 없이, 그리고 수감자의 내면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는 사면을 사법부에 청원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법적 판결을 뒤집는 것은 사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일 뿐더러 명백한 증언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내렸던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최선의 방안은 사면 밖에 없는 것이다. 정의로운 법을 향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안더가스트는 마우리치우스의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자신과 타협하고 만 것이다. 체

념과 무기력함 속에 삶을 보낸 마우리치우스에게 사면은 결코 반길만한 것이 아니다. 지성은 와해되었고 삶의 의지 또한 퇴화되었다. 사면은 삶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방안이 결코 되지 못한다.

안더가스트가 마우리치우스에 대한 사면을 청원한 이후로 수감자는 심리적 불안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방향을 잃은 채 그는 인간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사람은 자신의 조건들에 적응하기 마련이라고 [...] 지구상의 모든 부정의와 고통의 원인은 경험들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아주 조금만 전달되었을 뿐이다. 늘 혼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의 모든 방식은 유의미한 것과 참을 수 없는 것 사이에 놓여 있다. 늘 외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뿐이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MA 353).

안더가스트는 자기 동일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타자를 배제한 셈이다. 사법적 정의가 타자를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타자성을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차야할 수 있을 때 법은 진정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는 타자와 교섭하는 대화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정의는 늘 법의 실천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바서만의 작품에 나타난 법과 정의의 문제를 테리다의 관점을 빌어 새롭게 보고자 했다. 테리다는 법이 정의롭다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에 내재한 폭력성을 비판한다. 법을 해체하는 것은 정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다. 정의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며 초월적 입장에서 법의 운용을 조망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무한하고 계산 불가능한 정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이 타자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첼은 정의 실현을 동경하는 인물이고, 안더가스트는 사법적 질서와 보존에 대한 맹목적 신념 속에 갇혀 있는 인물이다. 이성과 합리성만이 중요한 가치인

그에게 에첼의 감성과 직관의 내면세계는 반사회적 요소로서 제거의 대상이다. 그러나 마우리치우스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안더가스트는 인식의 가능성에 있어서 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법적으로는 옳지만, 주관적 판단에서 그리고 윤리적 시각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법적 정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와 모순적 관계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마우리치우스의 불행한 삶과 죽음은 사법체계의 폭력성을 증거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책은 타자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비록 안더가스트의 실천은 제한적이지만, 바서만은 이러한 반성의 체계를 정의로운 법의 실현에 대한 사유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정의의 지평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에첼의 탄식과 회의적 입장을 좌절이 아닌 법의 억압적 독단에 대응하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해방의 요청으로 보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다. 정의는 법에 진리의 빛을 비춘다. 바서만은 열림의 체계인 정의가 법의 닫힌 체계를 부단히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마우리치우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에첼 안더가스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MA 545). 소설의 이 마지막 문장은 작가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Wassermann, Jakob(2009): Der Fall Maurizius. Frankfurt am Main.

### 2차 문헌

김지영(2013): 벤야민의 폭력비판에 대하여. 비평과 이론 18(2), 39-59.

김희근(2017): 야콥 바서만의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 나타난 메시아상. 독일언어문학 78, 78-133.

\_\_\_\_\_ (2018): 부버와 레비나스의 타자론 시각에서 바라본 야콥 바서만의 세계 구원 이념 - 소설 『카스파 하우스저 또는 양심의 나태함』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82, 227-247.

데리다의 해체적 사유와 바서만의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나타난 법과 정의의 문제 109

문광훈(2011): 무한한 정의. 발터 벤야민과 자크 데리다의 법 이해. 독일언어문학 51, 109-127.

Derrida, Jacques(1991): Gesetzeskraft. Der mystische Grund der Autorität. Frankfurt am Main.

Greissinger, Hermann(1986): Konzeptionen von Leben und Nicht-Leben im Werk von Jakob Wassermann und in den Erzähltexten der frühen Moderne. Bern u. a.

Horch, Hans Otto(1985): Verbrannt wird auf alle Fälle .... Juden und Judentum im Werk Wassermanns. In: Im Zeichen Hiobs. Jüdische Schriftsteller und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hrsg. v. Grimm/Bayerdörfer. Königstein/Ts., 124-146.

Jütten, Elisabeth(2007): Diskurse über Gerechtigkeit im Werk Jakob Wassermanns. Tübingen.

Koeter, Rudolf(1996): Jakob Wassermann. Berlin.

Martini, Fritz(1990): Jakob Wassermann: Die Utopie eines Messias in der Moderne. Zu dem Roman Die Juden von Zirndorf. In: Ders., Vom Sturm und Drang zu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321-342.

Neubauer, Martin(1994): Jakob Wassermann. Ein Schriftsteller im Urteil seiner Zeitgenossen. Frankfurt am Main.

Neuhaus, Volker(1993): Detektion als Justizkritik. Jakob Wassermanns Der Fall Maurizius. In: Experimente mit dem Kriminalroman. Ein Erzählmodell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hrsg. v. Wolfgang Düsing. Frankfurt am Main u. a., 15-28.

Rodewald, Dierk(1998): Carl Hau. Jakob Wassermann: der Fall Hau? Der Fall Maurizius! Kleiner Beitrag zur literaturgeschichtlichen Gerüchtebildung. In: Grenzfrevell. Rechtskultur und Literarische Kultur hrsg. v. Hans-Albrecht Koch u. a. Bonn, 109-128.

Schneider-Handschin, Esther(1989): Das Bild des Bürgertums in Jakob Wassermanns Adergast Trilogie. Bern u. a.

Zahnow, Holger(1984): Der Fall Maurizius. Jakob Wassermanns analytische Erzählkunst. In: Archiv für das Studium der neueren Sprachen und Literaturen 136. Bd. 221, 241-267.

## Zusammenfassung

### Derridas dekonstruktives Denken und das Problem von Recht und Gerechtigkeit in Wassermanns *Der Fall Maurizius*

Kim, Heegeun (Hanyang Univ.)

Das Gesetz beruht nicht auf Religion oder Gerechtigkeit, sondern hat von Anfang an Gewalt und selbst die Gewohnheit, sich der Gewalt zu unterwerfen. Das Gesetz ist weder unabhängig noch frei von der Außenwelt, und obwohl es den Wert der Gleichheit zu schätzen scheint, bedroht es im Namen der Universalität und Ordnung die Existenz von Individuen und Minderheiten. Daher ist es schwierig, ein faires und gerechtes Gerichtsurteil zu erwarten. Basierend auf diesen Ansichten Derridas versucht dieser Aufsatz, Wassermanns Roman *Der Fall Maurizius* neu zu betrachten. Durch unglückliches Leben und Tod von Maurizius demonstriert Wassermann die Ungerechtigkeiten und die Gewalt im Rechtssystem und zeichnet durch Wahrnehmung und Reflexion von Andergast die Möglichkeit eines Wandels des Rechtssystems und die Zukunft eines gerechten Rechts, das auf das Andere ausgerichtet ist. Obwohl die Praxis von Andergast begrenzt ist, setzt Wassermann das System der Reflexion auf eine wichtige Grundlage für die endgültige Verwirklichung eines gerechten Gesetzes. Gerechtigkeit beleuchtet das Gesetz im Licht der Wahrheit. Wassermann sieht Gerechtigkeit als ein System der Offenheit und ist überzeugt, dass es dem Abbau des geschlossenen Rechtssystems dient. Er glaubt, dass es Aufgabe der Literatur ist, die Ursachen von Konflikten, die sich hinter dem Gesetz verbergen, aufzudecken und die Konfrontation mit der Justiz zu zeigen und ihm Spannung zu verleihen.

Schlüsselwörter : Wassermann, Derrida, Levinas, Recht und Gerechtigkeit.

테리다의 해체적 사유와 바서만의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나타난 법과 정의의 문제 111

Gewalt im Recht

---

필자 E-mail : pius2108@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19. 11. 8 / 심사완료일: 2019. 12. 2 / 게재확정일: 2019. 12. 13

